



법원 “간첩사건 핵심 참고인 수사과정 위법”

〈유우성 여동생〉

“변호인과 서신 막은 건 법적 접근교통권 침해” 절차까지 위법성 지적... 준항고 1년 만에 결정 국정원 “물의 일으켜서 송구” 증거 위조 사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여동생에 대한 변호인 접근을 막은 국가정보원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검찰 측 증거로 법원에 제출된 중국 공문서가 위조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핵심 참고인에 대한 국정원 수사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법적 판단까지 나오면서 유씨 항소심 재판의 공소유지는 더욱 힘들어지게 됐다. 국정원은 증거 위조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양석우 판사는

“국정원이 유씨의 여동생 유가려씨에 대한 변호인 접근과 서신 전달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같은 법원 형사32단독 송영복 판사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유가려씨의 변호인이 지난해 2월 접근교통권 제한과 관련, 국정원을 상대로 낸 5건의 준항고 신청이 두 재판부에서 1년여 만에 모두 인용됐다. 유가려씨가 국정원에서 한 진술은 오빠 유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로 활용됐다.

국정원은 2012년 10월~2013년 4월 유가려씨를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해 조사했으며, 당시 진술을 근거로 오빠 유씨를 구속했다. 그러나 유가려씨는 신문센터에서 나온 뒤 “고문·협박을 받아 오빠가 간첩이라고 허위 진술했다”며 기존 진술을 뒤집었으며, 유씨는 결국 1심에서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 받았다. 여기에 국정원 수사 단계에서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결정까지 나온 것이다. 양 판사는 “유가려씨가 ‘변호사를 만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장기간의 수용 및 독방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느낀 심리적 불안과 중앙합동속에서 접견을 거절할 채 조사에 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대공수사팀이 중국 국적의 협조자 김모(61)씨가 구해 온 산허 변방검사장 공문서의 위조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위조를 지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씨가 배후로 지목한 국정원 직원, 일명 ‘김 사장’ 외에 대공수사팀이 이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미 김 사장 등을 조사했으며, 다른 대공수사팀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도 조율 중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이 형사사법 제도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신속하게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국정원은 이날 반늦게 성명을 내고 “물의 일을 아끼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검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반드시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4면



말레이시아기 실종 테러 가능성 높아져 사고기 의심 잔해 발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떠나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던 말레이시아항공 소속 보잉 777-200 여객기가 8일(현지시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인근 해역에서 갑자기 사라졌다. 탑승객 중 일부가 도난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테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9일 탑승객 중 4명이 도난 신고된 여권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중 2명은 항공권을 공동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연방수사국(FBI) 요원을 파견하는 등 사실상 테러에 의한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나섰다. 허삼 무드딘 후세인 말레이시아 교통부 장관은 “정보기관과 테러 조직을 포함한 국가안보 기관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고기는 8일 0시41분 쿠알라룸푸르를 떠나 오전 6시30분 베이징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쿠알라테렝가누에서 베트남 방향으로 약 135km 떨어진 지역에서 통신 두절과 함께 레이더 화면에서 사라졌다. 여객기에는 중국인 154명을 포함해 14개 국적의 승객 227명과 승무원 12명 등 모두 239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베트남 정보통신부 홈페이지를 인용해 “베트남 남서쪽 토추섬 인근에서 사고기 파편으로 보이는 잔해를 9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14면

이제훈 기자 parti98@kmbi.co.kr

오늘 집단휴진 전공의 대거 동참... 파장 클 듯

동네병원 의사들이 중심이 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10일 하루 동안 진료를 거부한다. 의사들의 대규모 집단행동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14년 만이다.

노환구 대한의사협회장은 9일 서울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의사들이 집단휴진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더 이상 잘못된 의료제도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던 의사 파업은 8일 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가세하기로 결정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1만7000여명 전공의들의 참여는 대학병원 진료공백과 직결돼 파장을 클 전망이다. >>관련기사 10면

이영미 기자 ymllee@kmbi.co.kr

본보 ‘학교이탈 청소년 캠프’ 부모와 눈물의 화해

“낳아주셨는데 실망만... 죄송” ♪ “엄마가 잘해줬어야... 미안”

“아버지, 세상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꼭 성공하겠습니다.”(규석)
“그래, 어서 집에 들어와라.”(아버지)
전화 통화를 마친 규석(이하 가명·18)이가 온 힘을 다해 눈물을 참았다. 차오르는 눈물을 다시 밀어내려는 듯 고개를 들어 시선을 천장에 고정하고는 눈을 빠르게 깜빡였다. “어릴 적 아버지가 팔베개를 자주 해주셨어요. 제가 잘못해서...” 규석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국민일보 주최 ‘학교이탈 청소년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과 강사들이 둥글게 서서 손을 잡고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캠프 참가자들은 2박3일간 자존감과 꿈을 되찾는 시간을 가졌다. 강화=김지훈 기자

규석... 민영... 다해... 학교 중퇴, 크고 작은 말썽 부모와 전화통화 하며 닫혔던 마음의 문 활짝 원망 눈녹듯, 사랑 샘솟듯

규석이는 고교 진학과 동시에 학교를 그만뒀다. 가출을 밥 먹듯 했고 사고를 쳐 경찰서를 들락거렸다. 한 살 터울의 형은 편의점 강도도 경찰에 붙잡혔다. 큰아들이 강도로 체포되는 뉴스가 나오던 날 아버지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 한 집에 살지만 대화는 없었다. 규석이는 “여전히 무뎠던 말투였지만 목소리로(아버지 마음이) 풀렸다는 걸 느꼈다. 화해가 이렇게 쉬울 줄 몰랐다”며 웃었다.

국민일보 주최 ‘학교이탈 청소년 캠프’에 참가한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힘들어한 미션은 부모님과 전화 통화였다. 오랫동안 크고 작은 말썽과 사고들로 부모와 나쁜 감정이 커져가 쌓여 있었던 아이들이다. 그

들은 캠프 초반 부모에 대해 원망과 분노, 그 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다.

민영(19)이는 이혼 후 재가(再嫁)한 어머니와 통화했다. 민영의 어눌한 말투와 소극적인 태도를 항상 나무라던 엄격한 어머니였다. 민영은 “제가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했더니 한동안 말이 없으셨다”고 했다. 잠시 뒤 돌아온 대답은 “내가 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였다. 아버지와 둘이 고시원 쪽방에서 살아온 민영은 외로움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던 아이였다.

여학생인 다해(18)는 “엄마에게 ‘실망만 시켜드려서 미안해요. 사랑해요’라고 했더니 ‘미친 거 아니냐. 너 도대체 어디야’라고 하셔서요”라고 말해 좌절을 웃겼다. 다해는 부모 허락도 없이 단짝 친구인 규석이를 따라왔다. 다해는 “전화 끊으면서 엄마가 ‘보고 싶으니까 빨리 와’라고 하셔서 기뻐했다”고 했다. 17세 소녀 다영은 “엄마에게 ‘(부모님) 결혼기념일에 경찰서 간 것이 제일 미안하다’고 했더니 ‘이런 전화를 하는) 우리 딸, 멋있다’라고 하셔서”며 부끄

해했다.

본보의 ‘착한 사회를 위하여-학교 떠난 아이들을 품자’ 시리즈의 일환으로 마련된 캠프는 지난 3일부터 2박3일간 인천시 강화군 그레이스힐 수련원에서 열렸다. 시리즈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학교이탈 청소년 4명이 상담·이야기·미술·심리치료 전문가 4명과 함께 갖가지 프로그램을 함께 하며 자존감과 꿈을 되찾는 시간을 가졌다.

>>관련기사 8·9면

강화=이도경 황인호 기자 yido@kmbi.co.kr

고객의 정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KT로 거듭나겠습니다

KT를 믿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고객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 드립니다.

가장 최우선으로 고객님의 소중한 자신인 개인정보가 유동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다시는 불의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잘못된 투자와 정책을 바로잡는 것은 물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보안시스템을 빠른 시간 내에 혁신하겠습니다.

고객 정보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우리 기업의 정신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고객이 믿고 신뢰하는 KT로 부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T 임직원 올림